

국회 열려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

‘숨고르기’ 국회, 8월엔 결산 심사·9월엔 국감 준비
4·3특별법 등 제주법안들 9월 지나 논의될 가능성도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27.9%… 역대 최악 평가 받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한 국회가 휴가철을 맞아 숨고르기를 한 뒤 8월 중순 이후에나 상임위가 재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안보 현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중순 이후 상임위는 정부 결산안 심사에 나서고 9월에는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돼 법안 심의의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이후는 운영위와 국방위 등만 열고 있고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회의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

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방문에 나서고 있고, 보좌진들도 8월 결산과 9월 정기국회 이전 재충전을 위한 휴가 분위기다. 100일간 열리는 9월 정기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이 기간 2019년도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결산과 국정감사에 의원실의 역량이 동원된다는 만큼 법안 심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기회인 만큼 법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법안의 경우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두고 있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7.9%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총 2만1155건의 법안이 발의돼 6342건이 처리되고, 1만4813건은 서류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략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호기심 가득한 동심 6일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교육박물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과거 제주의 교육 전시물들을 보고 있다.

도의회 행조특위 증인신문 ‘반쪽짜리’ 우려

회의 두 차례 연기 속
핵심증인 잇단 불출석
9일 예정대로 진행 예정

오는 9일 예정된 주요 5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앞서 당초 6월27일 예정됐던 대규모개발사업장 증인 신문 조사 일정을 원회통 제주도지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5일로 한 차례, 이후 잇단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8월9일로 또다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행조특위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일정 연기라며 해당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해 책임있는 증인을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9일 예정된 증인신문에는 원회통 지사와 문대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6일 원지사의 휴가일정(9일까지)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JDC 관계자는 “현안 관련 업무 일정으로 불출석하게 돼 사유서를 내일까지 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면서도 실무처장들이 출석하는 만큼 충분한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관련해 이상봉 행조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가 앞으로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한 도정의 확고한 입장을 제시하고, 문제

점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취지”라며 책임있는 답변을 위한 원지사의 출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신문일정이 두차례 연기된데다 12월까지인 행조특위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무작정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9월부터는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등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고, 아직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도 남아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로 난감하다”며 “원지사가 불출석하더라도 일단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의원 입법안 추진

강창일 국회의원, 이달중
특별법 개정안 발의키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정부 입법안과 함께 국회의원 입법안으로도 추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 예정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6월 7일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탄을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 현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가 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 입법안은 발의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심의절차에 들어가므로 정부 입법안과 국회의원 입법

안으로 동시 추진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시장의 임기의 경우 제주도의회안과 동일하게 4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로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지사와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같도록 했다. 다만 행정시장의 권한의 경우 제주도의회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전국 청소년들 “화해·상생 가치 같이”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
평화공원·유적지기행 등

전국의 청소년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 모여 4·3의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화해·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5일부터 7일까지 4·3평화공원과 도내 4·3 주요 유적지에서 ‘제10회 전국청소년 4·3평화캠프’를 진행하

고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59명, 도외 51명 등 11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첫날에는 참가자들이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의 입교식 이후 위령제단을 참배하면서 4·3영령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패봉안실과 행불인표적, 봉안관 등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4·3문화공연으로 상상놀이터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4·3이야기’를 관람했다.

이튿날은 김수열 시인의 4·3문학특강과 4·3의 비극이 서려있는 북촌너븐송이, 성산포 터진목 등에서 4·3역사기행이 진행됐다. 또 조별로 토론 및 발표를 통해 4·3의 가치, 평화·인권의 중요성 등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편 전국청소년제주4·3평화캠프는 도내의 고등학교 학생 중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과 4·3에 관심있는 학생을 모집해 제주4·3의 역사적 교훈을 느끼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행사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점점 사라지는 마을의 수놓음 문화 아쉬워”

성산·표선서 시민테이블

서귀포시는 지난 4일 표선면사무소 다목적실에서 성산과 표선 지역 주민 대상으로 3차 문화도시 시민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 라운드 테이블은 ‘노지문화란 무엇인가와 우리마을의 노지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라혜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현생생 문화

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 이광준 문화도시 센터장은 서귀포 문화도시의 비전 및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자들은 생태문화, 음식문화, 제주만의 상조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특히 마을에서의 수놓음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광령리~상가리 포장도
6.4km 보수공사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도 1121호선인 제안로 중 아스팔트 포장파손이 심해 도로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광령리~상가리 구간 6.4km에 대해 총사업비 7억2000만원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사 구간은 도로 곳곳에 포트홀과 거북등 균열이 발생되는 등 포장 균열이 가속화돼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오은지기자

제4회 한양조씨 가족한마당축제

문중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년마다 시행되는 한양조씨 가족한마당축제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되어 안내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친족, 가족분들과 함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시 | 2019년 8월 11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봉개 명도암 참살이체험농장(운동장 좌측건물 1층 교육관)

주 회

한양조씨제주특별자치도청년회

후 원

사단법인한양조씨제주도문중회

· 연락처 : 청년회장 조윤하(010-3639-4837) / 총무국장 조안성(010-2622-1983)

※참가자 전원 경품지급, 어린이/사모님 특별 경품지급. 우천시에는 실내강당에서 행사진행합니다.

문중회 임원

고 문 조준부 (남읍)

자문위원

조수민 (귀덕)

조태욱 (귀덕)

조순신 (세화)

조장생 (선율)

조용욱 (남읍)

회 장 조승철 (조수)

부 회 장 조경호 (강정)

조성민 (명월)

조용찬 (월림)

조익지 (신도)

조영희 (강정)

부 회 장 조영남 (조수)

조익중 (조수)

조순하 (구원)

조동근 (세화)

조동진 (세화)

조용남 (보성)

부 회 장 조봉용 (조수)

조성신 (귀덕)

총 무 국 장 조문희 (귀덕)

감 사 조용보 (명월)

조안성 (강정)

한림지화장 조석호 (함재)

청년회 임원

회 장 조윤하 (강정)

직전회장

조흥근 (조수)

고 문 조재홍 (봉개)

(전직회장)

조명용 (낙천)

조용보 (명월)

조승철 (조수)

부 회 장 조영수 (강정)

조문국 (귀덕)

조창범 (귀덕)

조철용 (낙천)

조재용 (낙천)

조상범 (덕천)

부 회 장 조균필 (덕천)

조두환 (명월)

조동근 (세화)

조민철 (선율)

조은진 (조수)

조영돈 (조수)

부 회 장 조익수 (명월)

감 사 조은홍 (귀덕)

조용덕 (조수)

총무국장 조안성 (강정)

사업국장 조은진 (귀덕)

재무국장 조영진 (조수)

홍보국장 조광용 (낙천)

홍보차장 조범근 (조수)

홍부차장 조상만 (강정)

자문위원

조영남 (조수)

조용남 (보성)

조근배 (안성)

조순하 (구원)

사단법인한양조씨제주도문중회 회장 조 승 철

한양조씨제주특별자치도청년회 회장 조 윤 하

지방자치분권 도민 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모델을 선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지위 확보 보색을 위한 도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9년. 8. 1(목) ~ 8. 30(금) 18:00한

☐ 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면 누구나

☐ 공모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기결정권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분권 사항(산업, 경제, 금융, 노동, 여성, 청년, 지역대학육성, 노인, 아동, 일자리, 지방의회 및 선거구,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시민운동및풀뿌리주민자치, 주민자기결정권, 환경생태, 관광, 보건의료, 문화예술, 도농지역균형발전, 교통, 교육자치, 지방재정권 등 모든 분야)

☐ 응모방법 :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 제출

☐ 제출처 및 연락처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 연락처 064)710-4794 / 010-7258-1592

- Fax: 064-723-2471 / E-mail: jejuswc@naver.com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실용성, 필요성, 효과성

- 1차: 자체심사 - 2차: 외부 심사위원 위촉 심사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9년 9월 중

☐ 시상내역

등급	대상(최우수)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시상금	50만원(1명)	200만원(8명)	200만원(20명)	50만원(50명)

※ 제출된 제안서는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010-7258-1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제안서 서식

지방자치분권 도민 아이디어 제안서

접수번호

수 신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제안명	성명	성별	연령
공모분야	주 소	☐ 남 ☐ 여	대
제안자	연락처	이메일	

지방자치 및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의 문제점

정책 제안 및 개선방안

기대효과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및 붙임자료 제출 가능